

한국 드라마 "전우"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 호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10년 12월 2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따라서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KBS TV는 이를 기념하여 올해 6월부터 이 전쟁을 그린 드라마 "전우"를 방송했다. 일본에서는 지금 KBS World에서 일본어 자막으로 볼 수 있다. 주연은 "첫사랑", "해신", "대조영"의 최수종. 상대역으로는 "소문난 칠공주"에서도 군인역을 연기했던 이태란이 '북'의 인민군 장교로 나온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연인 사이였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총을 겨누어야만 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다.

이 드라마는 1975년에 한국전쟁 25주년 기획으로 만들어진 같은 드라마의 리메이크인 것 같은데,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했던 전작에 비해 이번 작품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전쟁의 잔혹함을 알려,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KBS World의 방송으로 전체 20화 가운데 12화가 끝난 시점이므로 아직 전체적인 인상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곳곳에서 그 의도를 느낄 수는 있다. 총을 드는 것도 맞는 것도 두려워 한국군에서 탈영하여 도망치는 도중에 인민군 병사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가 "국군이건 인민군이건 간에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어쨌든 살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 인민군 보급기지 폭파를 명령받은 한국군 부대가 최초 작전에 실패하여, 수류탄을 안고 자폭하는 최후 수단밖에 없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부대장의 설득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뿐이지 않은가. 그들을 위해서 자폭하는 건 싫다"고 저항하는 병사들(결국, 자폭작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장면에서 전쟁에서 서로 죽이거나 명령을 받드는 것의 무의미함,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 60주년이라는 해도 저물어가려는 때에, 북한이 갑자기 한국의 연평도에 포격을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11월 23일). 이 포격으로 민간인 사망자도 나왔다. 북한과 한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지만, 민간인이 사는 육지에 대한 포격은 1953년 7월의 휴전협정 이후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연평도는 "UN군"이 그을 "북방한계선(NLL)"의 바로 옆의 섬으로 북한은 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으로 말하면, 연평도는 북한 영토이며 그곳에 사는 주민은 북한의 국민이 될 터이다. 즉, 북한의 주장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은 "남측의 도발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국민에게 대포를 쏜 것이 된다. 정말 모순되는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기가 그것이 권력의 본질이며 권력자의 이익, 필요를 위해서는 자국민을 살육하는 것마저 마다하지 않는 게 군의 논리라고는 하지만. (단, 북한이 연평도의 영유권을 공식으로 주장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연평도가 한국령인 것은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폭거에 대하여 대북한 강경론이 세를 불리고 있다. 제대로 된 논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대처의 방법은 어렵지만, 군사적인 압력을 강화한다든지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동시키는 것과 같은 강경책으로 해결된다면, 벌써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오히려 위험하다. "냉전"이 종결되어 20년이 되었는데도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미, 한, 일 대 중, 북, (러)라는 "새로운 냉전" 구조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만 한다. 이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 한하여 말한다 해도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외교력'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아쉽게도 대미추종, 종속 안으로 폭 빠져버린 일본에게는 아무런 외교력도 없다.

돌아보면 일본의 대미추종, 종속노선이 결정된 것은 한국전쟁이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극동전략으로 일본의 편입이 결정되어 미국 주도에 의한 조기 강화와 미일안보체제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져 일본의 재군비가 기정(既定)노선이 되었다. 그리고 미군의 일본에서의 긴급조달(한국, 조선특수)에 의해 일본 경제는 급속한 부흥을 달성하고 이후 일본은 주변국과의 관계마저 모두 미국에게 맡긴 채 경제성장의 길로 매진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정부와 국민이 60년 동안 이른바 "천성"이 된 대미추종, 종속의 발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북한을 둘러싼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 "전우"가 그리려 했던 것과 같이, 전쟁의 잔혹함, 어리석음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확하게 직시하고 허울뿐인 선동에 결코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